

##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사람 (마태복음 16:13-19)

신자는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생활도 잘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잘되면 돈이 들어온다. 신앙생활 중에서 근본은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는 것이다. 진짜 출발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끝나면 신앙생활의 증거를 볼 수 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다. 출발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3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고백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항상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로 주겠다. 이 열쇠는 땅에서도 열쇠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메면 하늘에서도 풀고 맬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매일 고백하면, 이 열쇠가 매일 역사하는 것이다.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돈 정복한다. 이거 말고 자꾸 다른거 하고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것이다. 오늘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최고로 중요한 날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없다. 경제의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돈돈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라는 것이다. 문제문제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라는 것이다.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인간에게는 절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오늘은 절대적인 날이다. 우리가 한번씩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쩔뻔 했나 아찔하다.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정말 그리고도 남을 것 같은 말을 한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아찔한 것이다. 은혜 없었으면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다. 저승사자 나타나면 꼼짝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십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으로 지킨다고 비판하는 설교가 많았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그리운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상업적으로도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 불신자도 메리크리스마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메리크리스마스 사라지고 해피 할러데이라고나 한다. 이런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 자의든 타의든 참 슬픈 일이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크리스마스가 내려앉아 버렸다. 상업적이든 무엇이든, 그 하루라도 일어서야 하는데, 이제 백화점도 별로 선전 안한다. 예전에는 많이 팔려고 난리났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중에는 학교에서 기도도 하지 말고 십계명도 하지 말라고 한 대통령 있다.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은 평등하지 않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평등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다르다. 사단과 영원히 다르고 절대 같아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 기쁜 일인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시대적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시대적인 인물과 똑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면 응답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다. 나는 바뀌지 않고 응답만 받으려니 하나님과 갈등이 오는 것이다. 너를 바꾸라, 나는 자동으로 준다. 나는 얼마든지 있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얼마든지 있다. 너를 바꾸라는 것이다. 니가 내 사람이 되면 자동이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과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 1.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사람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날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리 해봐야 소용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이 그리스도의 날로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기 위하여, 잊지 말 것은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언약으로 잡으면 저주에서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믿는 자에게는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다. 거기에 저주에서 해방이 약속되어 있다. 지옥 안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신적 저주에서 해방되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 뱀의 버리는 반드시 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24시간 하나님을 누릴수 있는 답이다. 그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다. 응답도 정복하고, 문제도 정복한다. 그는 왕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생도 환경도 전부다 정복할수 있다. 그것도 미리 정복하고 응답이 자동이다. 그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기 때문이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약속이 없다.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은 그리스도 하나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상 신자들은 그냥 믿고 끝낸다. 이 믿음의 내용도 확실치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믿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인생 끝까지 항상 매일 같이 살아야 할 언약이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도 짧지 않다. 우리 육신의 인생도 저주에서 나와야 증인이 된다. 세상에서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문제의 답을 찾고 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육신문제에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답은 여기 뿐인 것이다. 이 죽으시고 피흘리신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발견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짜 발견되어야 한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러나 발견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는 눈이 자꾸 열리게 된다. 어느날 그렇다, 정복이다, 답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이미 약속했으니까. 답이 오는 것이다. 눈이 열리고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잡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상황은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다 봤어 미리.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다. 밖으로 보면 마음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변화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의 출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고 누리고 전할뿐, 이 일 자체를 위하여 할 일은 없다. 우리가 노력으로 언약을 누리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내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천번만번 죽어도 아무 소용 없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일을 누리고 전하고 증인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죽으려고 대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를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적인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일을 하면 응답도 절대적으로 받는다. 반드시 응답 받고 증인되고 정복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사람이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다. 틀림 없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위

에도 있다. 평생을 두고 어쩌다 응답 받았다는 사람, 유튜브에 많이 있다. 그러나 그정도가 아니다. 한번도 너무나 귀하다. 한번 받은 응답이 평생 가고 평생의 양식이 된다면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그정도가 아니다. 계속이다. 끝까지. 계속 문이 열리는 것이다. 계속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더 크게 행복해지고 더 언약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것이다. 창조주요 왕이요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전하면 절대적으로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만일 이 언약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평생 생명 걸고 복음 전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보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출발이 뭐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열쇠를 줬다. 이것은 만능열쇠이다.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결론이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예언하셨고 이것은 성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잡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인생의 증거 나타난다. 나는 시대적인 인생, 전도하는 인생 살게 된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마태복음 6:33절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기 바란다.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인가? 나는 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언약으로 고백하는 자인가? 그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인가? 나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누렸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4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안테나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피스메이커이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인가 확인하는 날이 되기 바란다.

## 2.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교회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모델교회라는 말씀을 받았다. 미국과 남미에 대를 이어서 이 기념비적인 모델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받았다. 전도에 모델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에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개인은 누구든지 여기에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터 절대적이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 아니면 절대 안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항상 그렇다. 그 일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누가 원죄를 이길 것인가? 생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밖에 나가면 몇프로나 되겠나? 믿는 사람들도 내 문제는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다.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하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떻게 되는가?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냈다? 뽕뽕맞다고 할 것이다.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게 된다. 우리는 생각을 그래서 바뀌어야 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되는 일이 있어났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안되는 그런 일이 있어났다.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스스로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이 답을 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려 나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면 그 때부터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한다.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사이에 잡혀져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느냐? 되어졌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낭패를 당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풀리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르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광야에 다 남게 되었다. 광야하고 똑같다. 낭패가 난 것 같은데 기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소리를 했던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구원은 은혜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때로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거기서 누려야 한다. 지금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상황은 항상 어렵다. 상황은 항상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면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 하고 있다. 상황에 맞춰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말씀에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상황에 맞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상황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 힘이 없으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 상황에 진다. 이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언약으로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날 이 힘이 나에게 와 있게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을 선택하면 진다.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너 진짜 잘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른 말은 중요하지만 상황속에서 바른말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 되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 일어날 것이다. 237, 정말 선교운동, 백팀 백교회 일어날 것이다. 이것으로 237, 치유, 서밋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세계 복음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이 뜻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 하나 뿐이다. 이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고 문 열어주게 되어있다. 그래야 더 많은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하냐?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다. 진짜 언약되어 이런 사람 되기 바란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향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가기만 하면 된다. 간다고 말만 했으면 관찮았다. 안간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회개하면서 올라갔다. 때가 지나버렸다. 이 놀라운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는 받았다. 당연히 미국과 남미에 시대적인 복음운동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 잡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과 성경적 전도의 모델교회다. 망대와 같은 역할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안테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시대적인 표본교회, 성경의 표본적인 교회, 복음과 전도운동에 표본되는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자동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향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